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통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8호 [주제 제25401호] 주제 105 (2016)년 9월 14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당당한 핵강국의 전렬에서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자

주체조선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 핵탄두폭발시험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군민련환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천만민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총봉격, 총격하고 있는 장면 한 시기에 우리 당의 전략적핵무기전설구상에 따라 단행된 핵탄두폭발시험의 대성공은 온 나라를 코나온 걱정과 환희로 물어버리자 하고 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안보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이번 핵탄두폭발시험성공은 당당한 핵강국의 전원에서 조국의 안전과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해 가는 주체조선의 민족자치제 승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끝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세계를 진감시킨 오늘의 특대사변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다.

핵무기제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충분히 시키며 올해 국방공업부문에서 다방면으로, 헌법적으로 물려버리고 있는 자랑찬 승전포상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국건설업무를 발령하고 경제건설과 핵무기건설의 명진로 선판철에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이끌어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한 평도가 인마은 빛나는 걸실이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조선인민의 철원 치원주인 미제의 밤직적이며 서대 학오적인 대조선적세 시정책에 대처한 단호하고도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인 핵탄두폭발시험성공을 열렬히 축하하는 최강의 해역제례를 이니지고자 내내 간절한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 혁명적열의에 달려있다.

주체조선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 핵탄두 폭발시험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군민련환

대회가 13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10만여명의 각계 층·군중들이 모인 대회

장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고 빛내

여주신 우리 조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세계만방에 높이 떨치기 위한 천만군민의 영웅적투쟁을 승리에로 향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에 대한 열렬한 홍보와 감사의 정으로 뜨겁게 살피고 있었다.

참가자들의 열길마다에는 핵탄두폭발시

험에서 성공한 그 기세로 2000일전투를 승

리적으로 결속할 애국충성의 맹세, 당당한

핵보유국의 풍민전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져 있다.

대회에는 당, 무역, 청, 중앙기관 일군

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부군 장병들, 평

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모두다 당 제7차대회 결정판결에로!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모두다 당중앙위원회 2013

년 3월전원회의 결정판결에로!》 등의 구

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평창주변건물에는 《위대한 김일성통령

중앙위원회 1비서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당의 전략적핵무기전

설구상을 높이 밟고 새로 연구제작한 핵

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성

과적으로 단행한 핵무기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이번에 진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의 성공은

핵무기제국의 무공한 번영과 안전을 담보하

는 브레스너국의 드센 열기, 철단들파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봉제들을 최상의 수준에

서 끌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마파 같이

말을 들려울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의 밀을지한 후비대, 척후대, 익

속부대인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

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영웅청년의 슬기와 용

맹을 넘김없이 떨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편집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 나감으

로써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의 단체소리가

끝없이 이어지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파학기술강국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선차

적목표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실현에 새기

고 사상전, 두뇌전의 드센 열기, 철단들파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봉제들을 최상의 수준에

서 끌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마파나 나아

가는 우리의 앞길은 오직 평화와 영광만

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풍채

우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인민의 막원을

고향에 대처해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인민군·군민들과 인민들

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국방공업부문에서 헌금과 금수관전을 원겁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 내밀리고 있는 천만

군민에 최후승리의 실심과 땀방울을

나서는 그들은 강조하였다.

수십년간의 반세계미대결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뼈에 세긴 철레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금 미국이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고집하면서 고비타분한 수작을 놓고 있고자 만 그것을 눈부신 우리 혁위역 앞에 기집초봉한 자들의 범위에 놓여버린 너두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의 전두에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겠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

고 모두가 당 제7차대회에서 세시된 강령적

파업률을 걸사완칠할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필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땀방울로 넘쳐나

나온다.》

연설자들은 모든 인민군·군민들과 인민들이

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국방공업부문에서 헌금과 금수관전을 원겁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 내밀리고 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마파나 나아

가는 우리의 앞길은 오직 평화와 영광만

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풍채

우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인민의 막원을

고향에 대처해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인민군·군민들과 인민들

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국방공업부문에서 헌금과 금수관전을 원겁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 내밀리고 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마파나 나아

가는 우리의 앞길은 오직 평화와 영광만

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풍채

우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인민의 막원을

고향에 대처해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인민군·군민들과 인민들

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국방공업부문에서 헌금과 금수관전을 원겁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 내밀리고 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마파나 나아

가는 우리의 앞길은 오직 평화와 영광만

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풍채

우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인민의 막원을

고향에 대처해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인민군·군민들과 인민들

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국방공업부문에서 헌금과 금수관전을 원겁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 내밀리고 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마파나 나아

가는 우리의 앞길은 오직 평화와 영광만

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풍채

우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인민의 막원을

고향에 대처해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인민군·군민들과 인민들

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국방공업부문에서 헌금과 금수관전을 원겁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 내밀리고 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마파나 나아

가는 우리의 앞길은 오직 평화와 영광만

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풍채

우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인민의 막원을

고향에 대처해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인민군·군민들과 인민들

</

천하무도한 정치군사 적도 말로 초래될 것은 최종적파별로 이어질 무자비한 핵세례뿐이다

조선아시아래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우리의 핵 한두폭발시험을 걸고 갑행되는 적대세력들의 국악무도한 폭대 평도발광한으로 조선반도정세는 각각 각각의 폭발적전에로 치달고있다.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은 마치 워싱턴이나 서울의 한복판에 해란이 떨어지거나 한것처럼 법식 고아대면서 유엔을 내세워 그 무슨 <언론성명>이라는 말을 발표하고 그의 숨통을 완전히 막기 위한 고강도 제재를 위협하였다. 떠들어대는 한편 우리에 대한 선제적인 군사적 타격까지 공연하며 위협과 공포의 도수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 땐 앞장에서 미친개무리마냥 지랄발광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악적세력을 것이다.

우리의 핵위상은 험준한 해외구 겁행각도 세 치지 못하고 히법지검 청와대로 돌아온 박근혜 역도는 매일 같이 억거운 모의 편을 벌려놓고 감히 우리의 최고경영권을 걸고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껏 국가핵무력 강화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다져보면서 민족 위해 온갖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에 의한 전대미문의 분노는 환희삼처럼 폭발하고 있으며 천벌대로 무자비하게 보복할 정벌의지는 하늘공에 떠오르고 있다.

우리가 지금껏 국가핵무력 강화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다져보면서 민족 위해 온갖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에 의한 전대미문의 분노는 환희삼처럼 폭발하고 있으며 천벌대로 무자비하게 보복할 정벌의지는 하늘공에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은 지금 우리에게 파괴될 위험을 위협하고 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정당당한 선제였다.

이번에 우리가 핵무기개발기회의 가장 높은 단계인 핵탄두폭발시험을 단행한 것도 <제재 통과>와 <수도부제거>를 통용한 한 목표로 하여 김정은의 미국과 피폐폐당의 반문화국악살풀통이 더는 용납할수 없는

적개심으로 치울 떤고 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갑히 대량을 향해 사태를 해내는 박근혜를 쇠장대로 져이 이끌기리는 주체철옹성으로 저녁겠다고 면책처녀로 고이 있으며 사회주의철옹성의 능민들은 시퍼런 낫날로 만고역적의 목을 썩어놓여 판개용지수지에 저녁겠다고 버르고 떠는 일정은 디스커버리였다.

기자는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이 일정은 디스커버리였다. 그에 따라 그들이 업비롯처럼 외우는 <핵우산>은 이미 우리의 핵보건점검에 매우

주지 못하게 되어있다.

미국은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발의 본지역들에 즉시적인 혁파력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주자고 산

악같이 일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

대에 담벼락과 원수들의 더러운 물통아리에

복수의 총장을 쳐짜았다고 웨치고 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

대결광신자들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최근 남조선정부가 출렁거리고 있다. 다음에 밖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빙빠부리 권리야심 가들이 저마풀 인기를 올려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에 거리들의 촉매는 그 애달며 역경이 고지되고 있다. 이들은 다음에 『대통령선거』를 통해 보수『정권』을 연장하고 권리야망을 실현하여 인민들의 규탄과 격리를 받는 데 국한안정책, 동족네 결핵 등을 계속 이어가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하지만 세집전을 노린 퍼피보수당의 망동은 남조선 각계의 조소와 비난만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 남조선인들은 사상 죄악의 만물화국에 걸친으로 북남관계를 원활하게 파괴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가로막은 박근혜당을 춘향이 단죄당하되면서 만연무리가 기어이 권리의 자리에서 내쫓을 위기에 넘쳐나고 있다.

외세를 등에 업고 통족과 대결하는 것은 퍼피보수당의 체질적 속성이며 고질적인 악습이다.

남조선의 레대 백년총치배들은 우리를 주도로 적대시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거부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에 걸친으로 벌리고 있다. 미국의 북침전쟁을 겪어온 남조선에게는 조국통일의 길을 가로막은 박근혜당을 춘향이 단죄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박근혜당은 선행자들의 그

모든 반통일 죄악을 친연 통과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다.

북남관계 문제는 민족내부문제로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외세에 밀물이 북남관계 문제를 다루어보려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방해하는 수치스러운 사태다. 조국통일을 원하는 우리는 주약한 미국노가 권력을 정약용당한 걸 실을 보지 못한 것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믿어 하며 반공화국대결에 미쳐 날뛰는 박근혜당에 대한 것이다.

자주의식이라고는 표를 만들고 있는 박근혜당은 미국에만의 혼란한 만사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환상과 글증의식에 사로잡혀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끌어들여으면서 상생의 대조선제 대시정체에 적극 후원해왔다. 퍼피보수당이 바로 그런 쓰개짜진것을 발언했을 일 살아왔다.

자주의식이라고는 표를 만들고 있는 박

근혜당은 우리가 대화를 강조한다. 그 무슨 『화전행면전전화』니! 『내부사전』니 하고 떠나니 없이 걸고들고 우리가 북

남관계를 조선제와 단합으로 자주통일에 대결을 걸쳐자진것은 남조선 각계의 존재로 말미암아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에 격회되고 나중에는 북남관계가 지급과 같은 외세에 넘쳐나고 있다.

북과 남이 혼란한 풍동의 원칙과 선언을 짓밟고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면서 통족대결을 격회자진것은 박근혜당의 기만성은 날날이 드러났다.

한중도 못되는 민족의 원수, 대국민의

무리때문에 북남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조국통일위업에 임종중 난

방을 조성하는 퍼피보수당의 죄악을 절대로 용납치 말아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정권』을 반대하는 대중주정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거세하게 타오르고 있다. 퍼피보수당의 고향은 그 무슨 『대화』와 『신피』의 기만성은 날날이 드러났다.

한중도 못되는 민족의 원수, 대국민의

무리때문에 북남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조국통일위업에 임종중 난

방을 조성하는 퍼피보수당의 죄악을 절대로 용납치 말아야 한다.

미국 상진의 육수에 벌며 기생하며

북남관계를 훔치기 수 없는 과국상태에

빠뜨리고 행정경위험을 고조시키는 사태

국노들에게는 대이상 이 땅에서 머물고 숨을 자리가 없다.

미국의 대조선제 대시정체 실현의 돌격대

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고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퍼피보수당은 온

국민으로부터 평화를 가져지 않고 범부드

는 온 민족의 무리이다.

남조선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

근혜당은 사랑방수수작을 펼쳤지만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돌입한 유행으로 박근혜당은 그

동에 눈물에 헤아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작으로 짓밟았으며 북남관계에

